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와 여협사의 ZIP(지) 일원에서 열린 '제4회 동명커피산책'의 모습



광주 동구 제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예술의 거리'의 모습



광주 남구 제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백은대성시장에 백은동을 대표하는 끼치 캐릭터 조형물 인대판이 설치된 모습



남구 백은대성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서구 치평동 음식문화의 거리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서구 동천동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전남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남대 후문 공동 마케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품 돌림판을 돌리고 있는 모습



광산구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가 진행한 '제1회 광산허터락 페스티벌' 공연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지난 2021년 광산구 '제1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산정상인회 골목형상점가의 모습

골목형 상점가  
지역상권 활력의 시작입니다!

